

# 의대 가려고, 내신 때문에...자퇴하는 고교생

### 광주·전남 3년제 1~3학년 2327명...10명 중 9명 1·2학년생 고1 재수·검정고시 선택...서울 주요대 검정고시생 비율 증가 “전문직 학과 선발시 학생부 반영을 높여 공교육 파행 막아야”

광주·전남지역 고교에서 최근 3년제 자퇴한 10명 가운데 9명이 1·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신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검정고시 등을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지는 추세로 해석된다. 1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고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221명, 전남은 1106명 등 모두 2327명이 중도탈락했다. 1·2학년이 광주 1167,

전남 1041명 등 모두 2208명으로 전체 자퇴생의 94.8%에 달했다. 3학년은 광주·전남을 통틀어 119명에 그쳤다. 광주 고교 1년 자퇴생은 2021년 148명에서 2023년 312명으로, 전남은 각각 177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다. 고교 2학년의 경우 광주는 2021년 105명에서 2023년 215명으로 늘었고, 전남은 2021년 111명에서 2023년 178명으로 뛰었다. 진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른바 의·치·약대

등 인기학과 진학을 노리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1·2학년 중도탈락자 중 내신 성적이 이들 학과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들 학과의 커트라인인 내신 1등급 초반 유지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느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학교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이 많았던 예전과 다른 기현상이다. 자퇴생 가운데 1학년은 고교 재수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1학년 중퇴는 학력상으로 중졸에 해당돼 이듬해 다시 고교 배정을 받아 진학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정훈탁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의·치·약대를 노리는 학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때 내신 1등급 초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이들은 검정고시를 거쳐 수능을 보거나 다시 고교에 진학해 성적을 만회하려는 학생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사회가 고민해야할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적인 현상도 광주·전남과 다르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일반고 1학년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23학년도 8050명으로 2년 전인 2021학년도(5015명)에 비해 60.5% 늘었다. 고1~3학년 전체로 봐도 전국 17개 시도 기준 일반고의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3년 1만5520명으로 2021년 9504명, 2022년 1만2798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자퇴생은 2023학년도 기준 고1(805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고2(6434명), 고3(1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퇴생 증가 추세와 더불어 4년제와 서울 주요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 비율도 늘었다. 전국 4년제 신입생 중 검정고시생은 5년 전인 2018학년도 4533명에서 2023학년도 7690명으로 3137명 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함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2018학년도 276명에서 2023학년도 524명으로 증가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고교 중퇴자 급증 등 공교육 파행을 막으려면 의·치·약대 등 전문직 학과에서 학생 선발시 학생부를 보는 방향으로 입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 차례 대학수학능력 시험으로 학생 미래를 좌우하는 현재의 시험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더위 피해 초록 속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15일 산책 나온 시민들이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에서 평상과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공법 3단체 “내년 행사 직접 주관해야”

### ‘정치색 띠는 시민단체 배제’ 등 공론화 주장 논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부상자회, 근로자회 등 공법 3단체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에서 일부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과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공법 3단체와 5·18 현안 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법 3단체는 이 자리에서 5·18 민중항쟁 행사 주관 단체를 정치색을 배제한 시민사회 단체로 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논란이 예상된다. 공법 3단체장은 이를 위해 “내년 44주기 민간주도 5·18 기념행사부터는 공법 3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내년 44주년 민중항쟁 행사위원회의 상임행사 위원장 후보자 추천공고가 진행되고 있어 갑자기 일부 시민사회 단체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냈다. 정단은 특위 위원장은 “기념행사 주위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5·18 행사와 조예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 단체 등은 5·18 사적지 24호로 지정된 ‘망월동 5·18 묘역’을 오월 당사자들과 광주 시민의 양해 없이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특위는 5·18 기념사업에 관한 제도 정비, 시설과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헌법 전문 수록 건의 활동 강화,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을 위해 지난 달 19일 출범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신안 칠발도 바다제비 99% ‘플라스틱 먹었다’

### 사체 146구 중 145구서 발견

신안 칠발도에 사는 바다제비(사진) 10마리 중 9마리 이상이 플라스틱을 먹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바닷새연구소 김미란 박사 등이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한국 바다제비 성조와 유조의 해양쓰레기 섭취’ 논문 따르면 2013~2014년 신안군 칠발도에서 쇠무릎 등 외래 식물에 걸려 죽은 바다제비 사체 146구 가운데 145구(99.3%)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검출됐다. 칠발도 바다제비에게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의 평균 무게는 51mg이고 평균 길이는 4mm였다. 어린 새에게는 파편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 자란 어른새는 어망으로 추정되는 초록색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섭취해 실갈이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린새에게서 더 많이 확인됐



다. 연구진은 “어린 새의 63%, 어른 새의 24%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몸무게의 0.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성조의 경우 유조에게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름철새인 바다제비는 온몸이 암갈색이고 몸길이가 20cm 정도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분포한다. 전 세계 바다제비 70%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번식지인 신안 칠발도와 구술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광주·전남 4만8555명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찰이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4만8555명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시행했다. 15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했다.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자, 면허 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도민이 감면 대상이다. 벌점이 삭제되는 운전자는 광주 2만1409명, 전남 2만922명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133명과 전남 142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전형일: 2023. 10. 6(금)**

**전형일: 2024. 1. 19(금)**